

## <현몽쌍룡기>의 창작 방법과 작가의식\*

박 일 용\*\*

---

I. 서론	III. <현몽쌍룡기>의 갈등구조와 작가의식
II. <현몽쌍룡기>의 창작방법	IV. 결론

---

### I. 서론

<현몽쌍룡기>는 18권 18책의 장편 가문소설로서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Skillend에 의하면 권 13과 14가 한 책으로 묶여 있는 이본이 일본의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sup>1)</sup> 또, 이 작품은 적어도 1872년 이전에는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언문책목록』과<sup>2)</sup> 모리스 꾸랑의 『한국 서지 목록』에 제목이 실려 있다고 한다.<sup>3)</sup> 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이 작품을 장서각 소장 고소설 자료 집의 첫 번째 자료로 장서각 소장본을 영인하여 임치균 교수의 해제와 함께 출판을 하여 연구자들이 본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주었다.<sup>4)</sup>

---

\* 본 논문은 한국정신문화 연구원의 2002년도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홍익대학교 교수, 고전문학

1) W. E. Skillend, 『古代小説』,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W.C.1, 1968), p. 239.

2) 姜鏗燮, 「언문책 목록 소고」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중앙문화사(1995), 2027 쪽.

3) W.E. Skillend, 위의 책, p 239. 참조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는 일찍이 김기동 교수가 소개적인 논문을 쓰면서 가정소설로 규정한 뒤,<sup>5)</sup> 임치균 교수가 이 작품의 기본적인 서지 사항, 작품의 전체적인 경계 등을 소개하고, 이 작품과 <조씨삼대록>이 연작 관계에 있음을 밝혔으며, 이 작품의 거시적 갈등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 작품이 비슷한 유형의 구조가 반복되는 형태를 지니는 한편, 작품의 전반부에는 가정 내의 혼사 갈등이 병렬적으로 설정되다가 후반부에 이르러 갈등의 집약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정 외적으로 갈등이 심화 확대되어 나간다고 해석하였다.<sup>6)</sup> 이러한 김기동, 임치균 교수의 작업을 통해서 <현몽쌍룡기>의 개괄적인 모습은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작품의 서지 사항 및 연작 관계 등의 기초적 사실과, 작품의 경계 및 갈등 구조의 기본적인 특징 소개에 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갈등 구조에 대한 보다 섬세한 분석, 그리고 이러한 갈등 구조를 통해 표출되는 작가 의식 그것을 통해 느낄 수 있는 독자들의 미의식 등 여러 문제가 다양한 시각에서 해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본고에서는 작품의 구성을 분석하여 그것의 창작 방법을 추정하고, 그것에 표현된 작가 의식을 추출하기로 한다.

<현몽쌍룡기>를 읽으면, 김기동 교수가 가정소설로 규정을 하고, 임치균 교수가 그것의 갈등구조가 ‘비슷한 유형의 반복’, ‘가문 내에서 갈등이 전개되다가 가문 밖으로 갈등이 심화 확장되는 것’ 등으로 해석한 것처럼, 일반 대하 장편 소설 또는 가정소설의 갈등 구조를 답습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 소설에는 표면적으로는 유사한 유형이 반복되는 듯이 설정되면서도 기실 상호 대립적인 성격의 갈등 구조가 대조적인 형태로 병치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 이 소설에서는 작품의 주된 배경을 이루는 조씨 가문의 가부장 조숙과 그의 부인이 조씨 가문의 질서를 잡는 한편, 조숙의 모친까지 생존하여 가문 내적 질서에 관여를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 결과 이 작품에 설정된 갈등은 가문의 존립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동시에, 두 쌍의 부부 사이에 등장하는 갈등이 부부 문제 그 자체로서 선명히 부각된다.

4) 임치균 해제, 『<현몽쌍룡기>』, 장서각소장 고소설자료집1, 한국정신문연구회원 (1998).

5)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1983).

6) 임치균, 위의 논문

본고에서는 <현몽쌍룡가>에 설정된 이러한 대조적 병치 형식을 보이는 두 쌍의 주인공 부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작가의 창작방법과 그것에 투영된 작가의식을 분석하여 이 작품에 반영된 소설 향유층의 미학을 살펴보기로 한다.

## II. <현몽쌍룡기>의 창작방법

### 1. 유사 형태의 반복적 병치

<현몽쌍룡가>는 붉은 기 둘이 두 마리 용으로 변하여 조씨 가문의 가부장 조숙의 부인 위씨에게 달려드는 꿈을 꾸고 얻은 쌍둥이 형제 조무와 조성의 태몽) 내용을 제목으로 설정한 작품이다. 작품의 제목과 서두에 설정된 태몽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작품의 구성이 용으로 상징되는 바 뛰어난 능력을 펼쳐 나가는 이들 쌍둥이 형제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작품의 제목에 비범한 두 인물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이들 형제의 삶을 반복적으로 병치시키는 서사 구조를 취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의 삶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이 유사한 형태를 지님을 알 수 있다.

1) 용 태몽 후 조무가 탄생한다. 2) 태몽에서 예언한대로 금환을 지닌 정소저를 구출하여 정소저와 결혼을 한다. 3) 태부인의 명으로 과거에 급제하여 차석으로 합격한다. 4) 박수관의 계교 때문에 금선공주와 결혼한다. 5) 거란의 난을 평정하고 돌아온다. 6) 연소저를 불고이취한다. 7) 동진과 서초의 모반을 평정한다.

1) 용 태몽 후 조성이 탄생한다. 2) 태몽에서 예언한 대로 옥환을 지닌 연소저와 결혼을 한다. 3) 태부인의 명으로 과거에 장원으로 급제한다. 4) 늑흔에 의해 왕소저와 혼인을 한다. 5) 광동자사로 가서 광동을 안둔시킨다.

7) 홍기를 어로만져 즈시 보니 두 귀 문득 화하여 만여장이나 혼 황룡이 되어 여의주를 물고 산악갓흔 기세를 발하여 부인의게 드라드니.. <현몽쌍룡기> 권지, 3쪽.

- 6) 윤소저와 혼인을 한다. 7) 역모의 모함을 받았다가 풀려난다. 8) 동진과 서초의 모반을 평정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이들 쌍둥이 형제는 태몽에서 예언한 대로 자신들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조씨 가문을 번성시킴으로써, 조씨삼대륙으로 이어지는 조씨 가문의 부귀를 보다 확고하게 다지는 역할을 하는 인물들로서, 유사한 삶의 역정을 거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이들의 태몽 내용은 단순히 그들의 능력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연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쌍둥이 형제의 부모는 꿈에 이들이 금환과 옥환을 가진 여인들과 인연이 있다는 예언을 듣는다.<sup>8)</sup> 그리고, 앞으로 이들과 결혼을 할 여성 주인공 정소저와 양소저의 부모 역시 이와 동일한 태몽을 꾸 뒤 출산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태몽에 상응하여 이들 두 쌍의 남녀는 태몽의 예언대로 이 금환과 옥환을 매개로 하여 결혼을 하게 된다.<sup>9)</sup> 이러한 태몽 형태로 설정된 남녀 두쌍의 혼인 계기와 혼인 과정을 보면 애초 <현몽쌍룡가>란 제목은 작품의 구성이 단순히 남성 주인공의 삶의 역정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태몽에 예시된 바 예정된 여인들과의 결연과 그 이후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며, 그것들 역시 반복적 병치 형태로 제시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1) 정소저가 조무와 결혼을 한다. 2) 계모 박씨가 재산 때문에 모해를 한

- 8) 기 우희 밧날 슈즈와 쇠금즈와 구슬 옥지 완전하니 타일 혼스를 당하여 금옥으로 월환을 민드라 금옥 혼 빵을 각각 그 빵을 난호게 흐니 금환 한 짝 가진 재 대원슈의 부인이요 옥환 한 짝 가진 재 태혹스의 텃정 가위라 밧날 슈즈는 대원슈의 전세 잠연이니 비록 천하나 명쩍 슈즈 드니 있 거든 원하여 섬기물 막지 말나 흐고 슈중의서 금옥환을 너여 공을 주어 왈 텃기 비밀하니 금옥을 밀밀히 장하여 타일 혼스를 일우고 사람을 미리 뵈디 말나... <현몽쌍룡가> 권지일 3쪽
- 9) 남주인공들의 부친 조숙은 정소저의 부친 정세숙이 무식하고 천하다고 여겨 결연을 하지 않으려다가 정소저가 금환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무와 혼인을 시킨다. 또 양소저의 부친은 조성이 “그 풍신 용쾌 기특홀 뿐 아니라 상석의 달상과 복둥의 공땡의 도덕을 당하여 고금의 무뻑흔지라 미우의 냉냉흔 광휘를 보미 아 심이 기우러시대 우예흐는 바는 죠상국이 즐겨 오가를 구티 아닐 듯하고 또한 옥환 일스를 밧구티 못하여 바야흐로 번민하는 비라”고 하여 조성과 양소저의 결혼이 치우치다고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팔왕을 내세워 늑흔 형식을 빌어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은 양소저가 옥환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그려진다. <현몽쌍룡가> 권지삼, 63쪽

다. 3) 금선공주로 인해 친정에 간다. 4) 박수관과 모의한 양세가 납치하려 할 때, 정소저는 시비 벽난과 옷을 바꿔 입고 외가인 석부로 피하여 화를 면하고 대신 납치 당한 벽난은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고 탈출한다. 5) 아우 정공자가 아비를 죽이려는 폐륜 혐의를 받고 위기에 처하자 정소저가 등문고를 쳐 천자에게 혈서를 올려 구한다.

1) 양소저가 조성과 혼인을 한다. 2) 동생 양계가 재산 때문에 모해한다. 3) 금선공주로 인해 폐출된다. 4) 양세와 모의한 박수관이 납치하고자 할 때, 양소저는 시비 섬낭과 옷을 바꿔 입고 숙모택인 순부로 피하여 화를 면하고, 대신 납치당한 섬낭은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고 탈출한다. 5) 조성이 역모 모함으로 위기에 처하자 양소저가 등문고를 쳐서 황제께 혈서를 올려 구한다.<sup>10)</sup>

위에 인용한 요약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들 두 여인의 삶은 선행 연구에서 ‘유형적 반복’의 원리를 들어 지적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즐거에 있어서는 거의 같아 동일 사건을 반복하면서 디테일상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을 뿐”인 것처럼 보인다.<sup>11)</sup>

이처럼 이 작품이 <현몽쌍룡가>라는 제목을 통해 두 쌍둥이 형제의 삶을 중심으로 구성이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는 한편, 그들의 상대역인 두 여인의 행적을 이처럼 비슷하게 그리는 것은 작가가 작품을 구상하면서 유사한 형태를 병치하는 창작 방법을 취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작품에서는 여성 주인공들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모두 자신의 친정 식구들 때문인 것처럼 설정되고 있다. 조무의 처 정씨의 계모 박씨는 재산을 탐내 자신의 친정 조카 박수관으로 하여금 정씨를 취하도록 하게 하고, 박수관은 끊임 없이 정씨를 탈취하기 위해 계교를 꾸미는 한편, 고모 박귀비의 딸 금선공주가 조무와 결혼하도록 한다. 이로써 정씨는 조씨 가문 안과 밖에서 갖은 고난을 겪게 된다. 마찬가지로 조성의 처 양씨의 남동생 양세는 자기 집안의 재산이 조성에게

10) 임치균, 위의 논문, 17쪽

11) 같은 주석.

돌아갈까 봐서 양씨와 조성을 이간시키려한다. 그리하여 차정인 강후신 등과 짜고 누이인 양소저가 부정한 짓을 하는 것처럼 위조 편지를 꾸며 조성의 눈에 띄게 하거나, 양소저의 침실에서 외간 남자가 나오는 것처럼 꾸민다 이처럼 두 여인이 겪는 고난이 친정의 계모, 친정 동생 등과 같이 조씨 가문 밖 존재의 모해 때문에 야기되는 것으로 설정되며, 그로 인해 조씨 가문에서 축출되어 모진 고난을 겪으며, 몸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을 하게 하여 위험을 피하는 한편, 등문고를 올려서 남편 또는 남동생을 구하는 등 이들 여주인공의 행적이 유사하게 설정된다. 이처럼 여성 주인공이 겪는 고난과 그 원인도 유사 형태의 병치 방식을 취한다.

한편,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들보다는 작은 것이지만 여성 주인공의 친정 가문이 겪는 위기의 형태에서도 유사한 구조가 되풀이되는 형식을 취한다. 양소저의 친정 동생 양세는 양소저를 음해하던 양세의 행적이 탄로가 나자 양세는 차정인과 강후신의 꾀임에 빠져 자신의 부친인 양임을 죽이고 그 죄를 조성에게 씌우려는 계교를 꾸민다. 그러나 그것이 탄로가 나게 되어 양임이 먼저 양세를 잡으려 하는데, 양세는 아비의 상투를 잡고 뺨을 치고 달아난다 이에 양임은 상소를 올려 양세와 부자지의를 끊음으로써 멸문지화를 막으려 한다. 이러한 여주인공의 처가에 나타나는 부자 갈등은 정소저의 친정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 된다. 정소저의 계모 박씨는 정소저의 동생 정천희를 불러 강후신으로 하여금 죽이려 하는데 정천희가 집에 왔다가 다시 외가인 석부로 돌아가는 바람에 정천희의 자리에서 자던 서동을 찌르는 한편, 술에 취한 정소저의 부친 정세숙도 찌르고 달아난다. 그런데, 정세숙은 강후신을 자신의 아들 정희천으로 오인을 하게 되며 그의 처 박씨는 법부에다가 정희천을 강상죄인으로 고소를 하여서 정희천이 죽을 위기에 몰린다. 이처럼 여주인공이 정소저나 양소저의 친정에 설정된 부자갈등도 유사한 형태로 그려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몽쌍룡가>에는 남성주인공의 삶, 여성 주인공의 고난, 여주인공이 겪는 고난의 원인, 친정에 등장하는 갈등 등 대부분의 구성 요소들이 유사구조의 병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비슷한 유형 구조를 반복적으로 병치하는 것은 민담이나 <홍부잔> 처럼 민담에 근원을 둔 소설들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단선적 구성을 복합적 구성으로 변화시킬 때 사용하는 창작 기법이다. 그런데 이들 민담이나 민담에 기반을 둔 소설에서는 이러한 병치가 모방담 형태의

선후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몽쌍룡가>에서는 이러한 병치가 선후 관계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 진행적 형태로 나타난다. 이처럼 <현몽쌍룡가>에서 동시 진행적 병치 관계를 갖는 것은 이 작품의 서사 세계가 모방담과는 달리 대단히 복잡한 구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현몽쌍룡가>를 구성하는 조무와 조성 부부의 행적을 따로 떼어서 살펴본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독자들이 쉽게 떠올리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다. 그러기에, 만일 이들이 비슷한 구조를 지니지 않는다면, 그것들의 구성은 상호 교차되어 더욱 복잡한 형태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런데, <현몽쌍룡가>에서는 18 권 18 책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의 장편 가문소설의 창작 방법으로 이러한 동시 진행적 병치의 구성 방식을 취함으로써, 각각의 구성이 상호 조명을 하게 하여 구성의 인식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작가 스스로의 창작 과정에서 소설의 구성을 선명하게 부각시켜서 구성적 통일성의 심도를 높이는 한편, 개별 사건의 전개 과정에 함몰하다 보면 전체의 구성 파악에 혼란을 겪게 될 독자들에게 구성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환기시켜주는 효과를 연출한 것이다.<sup>12)</sup>

## 2. 상반된 내용의 대조적 병치

앞에서 살펴본 바 <현몽쌍룡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형식을 결정하는 갈등 요소들은 유사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병치되는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그런데 이처럼 동일한 유형의 반복은 독자로 하여금 구성의 흐름을 잊지 않고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독자를 지루하게 만들 위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복적 병치는 대부분, 형태의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의미의 측면에서는 상반된 내용을 대조적인 형태로 병치한다. 예컨대, 흥부와 놀부, 흑뱀이 갔다가 흑불이 오는 사람 이야기 등은 행위 구조는 동일하지만 행위 동기와 결과를 상반되게 설정함으로써, 행위의 의미를 선악의 형태로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것이다.

<현몽쌍룡가>에 설정된 영웅적인 인물 조무 조성 형제의 삶과 수난을 겪는 그

12) <현씨양용쌍룡가>에서도 이 작품처럼 현수문과 현경문이라는 뛰어난 두 남주인공 형제를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반복적인 병치 형식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들 처의 삶도 이들처럼 형태상으로는 유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반된 모습을 지님으로써 부부 관계가 대조적으로 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조무와 조성은 용으로 상징되는 바 뛰어난 능력의 실현이란 점에서 공통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애초 태몽에서 각기 문·무(文武)의 다른 능력과 운명을 타고 나서 조성은 천하대원수 도총병 벼슬을 하고, 조성은 대승상 용두각 태학사를 하는 것으로 설정된다.<sup>13)</sup> 그리고 그들의 성품은 ‘크게 상반하여’ 조무는 ‘천고 영웅의 기상을 발하고’, 조성은 ‘정대 군자의 품이 있다고 설정된다<sup>14)</sup> 이처럼 작품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들을 문과 무, 그리고 ‘도덕’과 ‘재기 발호’한 성격을 지닌 상반된 인물로 설정한 것은 초기 가문소설의 하나인 <유효공선행록>의 유연과 유흥의 경우처럼 가문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품을 대조적으로 설정하는 창작 방법 일반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유효공선행록>에서와 달리 이 작품에서는 이들을 ‘쌍룡’의 범주로 묶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의 성품과 행동에 대한 대립적인 가치 평가적 시각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 남성 주인공의 삶을 거시적으로 개괄해 보면, 큰 편차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일 유형 구조를 반복적으로 병치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앞에서 요약한 바 이들 남성 주인공의 짝인 여성 주인공들의 삶은 이들 남성 주인공의 삶과 달리 결말부분을 제외한다면 삶 전체가 고난과 그것의 극복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이 작품이 표면적으로는 쌍룡으로 상징되는 바 남성 주인공들의 삶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는 듯한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상 고난을 겪는 여성의 삶과 관련하여 이들 부부 관계를 형상화하는 데 서술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13) 좁은 바 귀 들을 즐겨늘 경혹하야 바다보니 귀의 빠시디 천하대원수도총병 조위라 호얏고 또 한 귀의는 대승상용두각태학사 조성이라 호야 전자로 녀긔히 벗겨늘... <현몽쌍룡가>, 3쪽.

14) 성품인즉 동복 쌍룡으로 크게 상반하야 대공주는 회회 풍능 화려하고 제미 제서모와 회회 남자할 뿐 아니라 방외의 눈 즉 사름과 갈애움 호고 울 괴로이 보치여 스스로 발월흔 기운을 당축디 못하야 호호히 고은 야학 긔고 재죄 일취월당 호야 한 번 눈에 지는 거슬 외오고 귀의 지나면 니즐거시 업서 천고 영웅의 기상이오 츠공주는 문당 재학이 효세하며 수행 성회 심이지지하여 으로부터 좌립의 네되 진중호고 언논이 정대하야 입을 연즉 공팅의 도덕이 나타나고 몸을 움직이매 정대 군자의 품이 이시니 상하 노리 칠팔세 척동으로 보지 못하니. <현몽쌍룡가>, 권지 일, 9쪽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조성과 조무는 보통 사람보다 빼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모두 서술자에 의해 긍정적으로 형상화되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들의 짝이 겪는 고난은 모두 자신의 친정 식구들의 모해로 인해 겪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고난은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 조성과 조무는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로서, 이러한 대조적 성격은 그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에도 그대로 연장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부부 관계를 미시적으로 차분히 분석해 보면, 각각의 부부 관계는 대조적인 모습을 지님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장자 조성은 “영웅적 기상과 재기가 발호한” 인물로, 차자 조성은 “정대 군자”의 풍모를 지닌 인물로 설정되는데, 이러한 이들의 성품은 여성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조무는 풍류호남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그려지고, 조성은 도덕군자형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그려진다. 작가는 이러한 이들의 대조적인 대 여성적 성격을 구체화하기 위해 작품의 서두 부분에 “앵혈” 사건을 설정한다. 예컨대, 조무의 서모인 화씨가 시비들에게 앵혈을 가져다가 주점을 하다가 장난으로 조무에게 앵혈로 주점을 찍어 놓는다. 이에 조무는 이 앵혈을 없애기 위해 집안에 있는 창기 수영을 강압적으로 친압한다. 이를 안 조성이 충고를 하자 조무는 “현재는 공맹 인증을 법하고 우형은 손오와 제갈 같기를 원한다” 하면서 충고를 물리치고 수영과 관계를 계속하다가 부친에게 발각되어 크게 치죄를 당한다. 작가는 서모 화씨로 하여금 남자인 조무에게 앵혈을 찍게 하는 장난적 사건을 설정하여 소설 독자층에게 기발한 사건을 빌미로 한 웃음을 제공하면서도, 조무가 조성과 달리 풍류남아로서 방탕한 기질이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현몽쌍룡가>의 작가는 이처럼 조성과 조무가 문과 무라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정인군자와 풍류호남의 대조적 성격을 지닌 인물로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여 그들이 펼치는 대 여성 관계를 대조시켜 형상화한다. 그리고, 작가는 모든 사건이 전개될 때마다 이들 두 형제 사이의 담화 장면을 설정하여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견해를 표출하게 함으로써 여성 관계에 이들의 대조적 태도를 부각시킨다. 이로써 이를 통해 작가는 가부장제적 부부관계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제시하는 한편, 유가적 이념에 입각한 이상적인 부부 관계의 전형이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제시한다.

한편, 이 작품에서는 작품의 주된 배경이 조씨 가문과 작중에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의 친정들을 대조적으로 형상화하는 한편, 친정 가문들도 상호 대조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가부장제 입각한 치가의 이상을 드러내려 한다. 예컨대, 작품의 주된 배경으로 설정된 조씨 가문에서는 문제가 되는 남성 주인공 조무와 조성의 부부 갈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부장인 조숙과 그의 처 그리고 조숙의 어머니인 태부인이 가문 내의 문제를 치우침 없이 처리함으로써 가문의 구성원이 역모죄에 얽혀드는 위기에 직면하여서도 가문의 핵심 구성원이 분열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여 가문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조무와 조숙의 처가에서는 무도한 자식과 후처의 존재로 인하여 가문 내적 갈등의 극단적 표상이라 할 수 있는 강상죄가 발생함으로써 가문의 위기를 맞는 것으로 그려진다.

또, 조씨 가문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 정씨와 양씨 가문의 질서가, 이들 서로를 비교해 보면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정씨 가문에서는 가부장의 간악한 후처 박씨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시집간 전처 소생 정소저를 모해하는 한편, 전처 소생의 아들 정천희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다. 그런데, 이처럼 간악한 박씨가 악행을 하는 것은 가부장 정세숙이 용렬하기 때문으로 그려진다. 예컨대, 박씨가 강후신을 시켜 정천희를 죽이려다가 죽이지 못하고 정세숙을 죽이려 하다 도망을 가자, 술에 취한 정세숙은 강후신을 자기의 아들 정천희라고 주장을 하여 정천희를 강상 죄인으로 만든다. 이에 가문의 일족들이나 법부의 관리들이 정세숙의 용렬함을 나무라고 부모를 위해 스스로 죄를 덮어쓰는 정천희를 변호하며, 정소저는 등문고를 쳐서 정천희를 구한다. 반면, 양소저의 친정에서는 역으로 무도한 아들 양서가 자신의 누이를 모해하는 한편, 아버지인 양임을 죽이려 함으로써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나, 현명한 양임은 멸문지화를 막기 위해 아들 양임을 폐출하는 상소를 올리는 용단을 내림으로써 멸문지화를 미리 막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처럼 양씨 가문과 정씨 가문은 표면적으로는 가문의 질서가 훼손되어 위기를 맞는 한편, 그로 인해 여주인공들이 수난을 겪는 것처럼 그려져서 유사한 모습을 지닌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가문적 갈등에 대응하는 가부장의 태도를 대조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서술자가 지향하는 바 안정적인 가문적 질서 유지의 방안이 무엇인가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해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현몽쌍룡가>에는 쌍동이 남성 주인공의 삶, 여성 주인공의 고난과 부부 관계, 그리고 여성 주인공의 고난의 원인, 고난의 원인을 제공하는 친정의 가문적 질서와 갈등 등 모든 구성요소를 표면적으로는 유사한 형태를 병치시키는 것처럼 설정하면서도, 그것들의 실제적인 내용을 대조적인 것으로 그림으로써 서술자가 생각하는 바 가문내적 질서 유지를 위한 가부장의 이상적인 치가의도, 그리고 그것의 보다 구체화된 항목으로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이상적인 태도를 선명하게 부각시킨다.

### III. <현몽쌍룡기>의 갈등구조와 작가의식

#### 1. 표면적 갈등 구조와 여성 수난의 의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몽쌍룡가>는 표면적으로 남성 주인공 조무와 조성의 빼어난 일생을 그린 것처럼 보이지만, 구성의 대부분은 그들의 짝인 정소저와 양소저가 겪는 수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이 친정 식구들 때문인 것처럼 그려진다.

예컨대, 조무의 처 정소저는 친정 계모의 모략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정소저와 그의 동생은 모친이 죽은 뒤 외가에 가서 살고 있었는데, 계모인 박씨가 그들을 제거하고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집으로 데려와 정소저와 자신의 조카 박수관을 결혼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를 눈치챈 정소저가 남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탈출을 하여 숙모 집으로 도망을 하다가 박수관 일행에게 쫓겨 강물에 뛰어들게 되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조무 조성 형제에게 구출되어 조무와 혼인을 하게 된다. 그 후 박수관이 조무와 정소저를 갈라놓기 위해 박귀비를 움직여 박귀비의 딸 금선공주와 조무를 결혼시키며, 정소저를 무고하여 폐출시킨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를 처로 맞아들이려는 양소저의 아우 양세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또 조성의 처 양소저는 자신의 친정 동생 양세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양세는 조성의 인물이 뛰어난 것을 보고 자기 집 재산이 모두 조성에게 돌아갈까 두려워서 강후신과 차평자 등을 움직여 조성파 양소저가 서로를 멀리하게 만든다. 즉, 조

성으로 하여금 양소저가 강후신과 만나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기 위해 음란한 편지, 강후신과 만나는 장면 등 여러 간계를 연출한다. 그리고 박수관으로 하여금 상소를 올리게 하여 양소저를 폐출시킨다. 그리고 박수관으로 하여금 양소저를 처로 맞이하게 하여 양소저를 위기에 빠뜨린다.

한편, 전반부에는 이러한 표면적 갈등이 여성 주인공들의 수난과 관련된 것으로 그려지는데, 후반부에는 그것이 박수관, 차평자, 오윤화, 초왕 등의 조정의 신료들과 조성, 및 양소저와 정소저 사이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한편 조정의 수난으로 이어지고 이의 해결을 통해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처럼 가문 내적 갈등을 가문 외적 갈등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그것의 해소를 통해 가문내적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식은, 일반적인 가문소설 갈등구조의 전개 방식을 수용한 것이다.

<현몽쌍룡가>의 주된 독자층인 상층 사대부 부녀들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연속되는 교묘한 계교 앞에 노출된 여주인공들의 위험과, 그것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나가는 과정에서 긴장감과 안도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처럼 작품에 설정된 표층적 갈등 구조는 여주인공들이 겪는 수난을 통해 소설적 긴장감을 강화시켜 독자층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요조숙녀인 주인공들이 그들을 해결하려는 온갖 계교를 피해 자신의 정절을 지키면서 등문고를 치고 혈서를 황제에게 바쳐서 위기에 빠진 남편이나 부친을 구하는 모습에 소설 독자들은 자신을 투사시켜 카타르시스를 맞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이 주 독자층이라 할 수 있는 이 작품에서 왜 이처럼 표면적 갈등의 원인을 여성의 친정으로 설정하는가가 문제이다. 더욱이 이 작품에 설정된 이러한 표면적 갈등의 계기나, 갈등의 진행 과정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아무리 계모라 할지라도 시집을 간 딸에게, 또는 시집을 간 누이에게 재산을 빼앗길까 봐서 그들을 모해한다는 것은 조선후기 상속제도로 보아 현실성이 높아 보이지 않으며, 단순히 미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남의 집 처를 자신의 처로 맞이하려고 지속적으로 계교를 꾸민다는 것도 현실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 작품에서는 여성 주인공의 시부모나 시조모, 시서모, 시누이 등 시댁 식구들은 두 여성 주인공을 끔찍이 아끼며, 그들의 고난을 동정하는 한편 그녀들의 고난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 또한 정도가 지나쳐서 현실적 통념으로는 설득력이 그다지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라 할 수 있다.<sup>15)</sup>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조무와 정소저의 결혼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서술자는 정세숙의 인품과 그의 후처 박씨의 됴됨이로 보면 이 결혼이 성립되지 못할 것이지만, 정소저의 인품과 태몽에서 지시한 신물 때문에 혼인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정하여,<sup>16)</sup> 조무와 정소저의 혼인이 현실보다도 치우친 양혼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 박씨가 정소저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모해를 하여 정소저 남매가 어쩔 수 없이 외가로 피신할 수밖에 없게 그려지며, 또 박수관이 정소저를 납치하려는 사건이 설정되어 정소저가 남북을 하고 도망을 하다가 강에 뛰어들어 조무 형제에게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조무 형제와 조숙에게 정소저의 이러한 사정이 알려지도록 설정된다. 이러한 정황은 애초에 설정한 바 시댁보다도 친정이 기울어진 혼사의 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소저는 저의 아버와 계모를 변명하면서 자신이 효를 다하여 감화시키지 못하고 처녀로서 남북을 하고 집밖으로 나와 위험에 처하였다가 외간 남자에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아버 몰래 혼인을 하는 것을 도리가 아닌 것으로 여겨 극력 사양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안 조무의 부친 조숙은 그녀의 외조부 석시랑에게 “격절 탄상 왈 정씨의 인사 처신이 여중 군자이니 차는 다 현형의 높은 교훈을 힘 입음이다. 소제 이같은 며느리를 얻으니 어찌 친용의 불인함을 탄하리오 이는 신부다려 의논할 말이 아니니 현형이 주장하소서” 라고 하면서 혼사를 이룬다 이에 대해 정소저는 심규의 여인으로서 친정 집의 상황 때문에 도로에 유리하여 외간 남자에게 구원을 받은 뒤, 자신을 구원해준 사람과 결혼을 해야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참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15) 이는 창란호연록, 옥원제합기연, 명주기봉, 양현문직절기 등 용서 대립 모티프를 매개로 하여 부부 갈등을 다루는 작품들 대부분에도 해당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양민정 「창란호연록에 나타난 용서, 고부간 갈등과 사회적 의미」, 『한국 가문소설 연구논총2』, 이수봉 외, 경인문화사(1999); 한길연, 「사대부가 여성독자의 시각에서 본 용서대립담의 의미와 그 유형」, (고소설학회 59차 학술대회 발표요지, 2002. 10. 26).

16) 죠시 쇼 왈 몽사는 허탄하니 취신티 못허려니와 쏘한 신펁이 이셔 두 으을 나호시미 금환이 이시니 이 엇디 텨의 아니타 흐리오 다만 념컨디 텨공이 인인 군직 아니며 기 처 박시 숙네 아니라 마춤내 어려운 일이 이실가 두리나 츠마 사티 못하는 바는 사메의 출신 핑결혼 괴상으로 이텨아 갖흔 숙녀를 노코 다시 득지 못홀가 흐미라. <현몽쌍룡가> 권지일 25 쪽

된다.<sup>17)</sup>

이처럼 애초 정소저와 조무의 결혼은 그녀의 덕성과 절의를 인정하는 조씨 가문 구성원의 비호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설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가부장 조숙을 비롯한 조씨 가문 구성원이 정소저의 절의와 덕성을 의심한다면 이들의 결혼은 그것을 지탱시키는 유일한 근거가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현몽쌍룡가>에서 조씨 가문의 구성원들이 지나치리만큼 정씨의 절의와 덕성을 칭찬하면서 그녀를 비호하는 것은 조무와 정소저의 결혼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씨 가문 구성원의 비호에도 불구하고 조씨의 내면에는 양혼에서 야기된 친정 콤플렉스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처럼 <현몽쌍룡가> 및 여타 용렬한 장인과의 용서갈등을 매개로 하여 부부 갈등을 형상화하는 여러 가문 소설들에는, 비슷한 문벌끼리 혼인을 하여 가문간의 결속을 강화하려던 조선 후기 상층 사대부 사회의 세태와 달리, 양혼을 한 부녀층의 친정 콤플렉스가 투영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친정 콤플렉스는 이후 전개될 남편과의 부부갈등의 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 소설 독자층은 정소저와 조무 사이에 나타나는 부부갈등에 이러한 양혼 콤플렉스를 투사하여 내면에 쌓인 억압을 해소한 것이다.

한편, 양소저와 조성의 결혼은 양임의 장인 팔왕이 증매를 서고 양임의 누이가 옥환을 소지하였음을 숙모뻘이 되는 조씨 가문의 태부인에게 알려 성사된다. 이렇게 볼 때 비록 양임이 ‘아심이 기울었으되 우예하는 바는 조상국이 즐겨 오가를 구치 아닐 듯하고 옥환 일사를 발구치 못하여 바야흐로 번민하는 배라’고 하여 양씨 가문이 기우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합당한 가문끼리 혼례를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소저의 결혼 생활에서 양혼 콤플렉스가 나타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누이와 매부를 이간하려는 양세의 계교가 몰래 시행되기 때문에 양소저는 왜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병이 드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다 후반부에 이르러 양세의 죄가 탄로되자 양소저가 “가형의 일

17) 규녀의 도리 여러 번 다토키도 요란하고 부모를 쇼기고 나와 모르게 성친하니 인류의 구족함과 효의 휴손하며 또 죠평즈를 새로 만나 그 손으로 즈기를 건지던 바를 생각하자 마음이 셔늘하고 모골이 송연하니 빙옥 절개 도로혀 사름의 나리 여기미 될가 천스 만념의 비길 디 업스니 백가지 비회 교집혀야 식반을 틀니치고 머리틀 봉침에 더져 날이 못도록 울음치황혀야 세상의 막음이 업스니.... <현몽쌍룡가> 권지이 53 쪽

을 붓그려 한잠을 이루지 못하니 상서가 약질에 병이 날까 관위하고 근근 위극한 정이 무궁하거늘”<sup>18)</sup>이라고 친정 문제에 대해 근심하는 모양을 간단하게 서술한다. 이는 정소저가 자신의 친정 집안 문제로 콤플렉스를 느끼는 것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름을 뜻하는 것이다.

양소저를 모해하는 양세는 “학문은 천지 두자를 모르고 말은 변변한 한훤을 일우지 못하나 성도가 시험 포려하여 만복에 쌓인 것이 흉독한 의사뿐인” 인물로 그려진다. 이러한 양세가 양소저와 조성을 이간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자신 대신 사위에게 후사를 위탁하려한다는 부친의 말을 엿들었기 때문이다.<sup>19)</sup> 그런데, 요순의 사례를 들어 자신의 후사를 사위인 양임에게 맡기겠다는 양임의 말은 재산이나 봉사권을 사위에게 상속하지 않는 조선후기의 일반적인 관행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작품의 후반부에 설정된 부자간의 살육극과<sup>20)</sup> 그로 인해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 부자지의를 폐하는 것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사실 반영적 측면보다는 양소저에 대한 모해를 유도하기 위해 설정된 소설적 허구가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친정 동생을 극단적인 악인형 인물로 설정하여 누이를 모해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양소저의 고난이 정소저의 고난과 대조적으로 병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 정소저의 양혼 콤플렉스를 형상화하면서 정씨의 숙덕을 보장하기 위해 조숙 부부나 태부인 등 가부장권을 행사하는 인물들이 모두 치가의 법도를 지키는 것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씨의 고난이 조씨 가문의 가부장제적 질서와 관련된 것으로 그려질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바 양씨의 남편 조성은 풍류호남인 조무와 달리 정인 군자로 그려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그는 어

18) <현몽쌍룡가> 권지십이, 335쪽.  
 19) 하늘이 오문을 띄이 여기샤 저런 역직 나시니 오문을 망할 거시라 요순 가튼 성군도 자식이 불초 함미 대위를 사위와 신하로써 맞디니 차라리 이가튼 거시 업스면 여아를 성혼호야 신후 위탁을 죠생으로 하미 맛당하라짜. <현몽쌍룡가> 권지이, 67쪽  
 20) 양세가 자신의 죄가 탄로나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그것을 안 양임이“ 문을 열고 다라드러 문져 칼을 앓고 그 상토를 잡고 노복을 부르니 츠 강은 나눈드시 다라나고 세는 잡히매 눈을 부릅쓰고 학스를 밀쳐 왓 일흠이 부지나 전세 원업이라 무슴 일로 나를 잡느냐 양공이 칼로 지으려 하나 부즈지정의 차마 못호고 약을 머겨 죽이려 혼 즉 .중략 겨우 진정호여 크게 혼 소리 지르고 칼을 드러 자문코져 하니 제복이 울며 급히 칼을 아스”서 살아나게 된다. <현몽쌍룡가> 권지십이, 338쪽.

떠난 경우에도 부인 양씨를 고난에 빠트리는 빌미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조씨 가문 내에서는 양소저의 고난을 야기할 인물들이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소저의 고난을 야기할 존재로서 친정 동생이 설정된 것이다.

가문소설에서 혼인한 부녀자가 겪을 수 있는 고난은 치가의 법도를 지키지 못하는 가문 내적 존재로 인해 야기되거나, 아니면 친정 식구로 인해 야기될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질 사대부 부녀자는 가문 내적 인물이나 친정의 인물 외에는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양소저가 도덕군자인 조성의 부인으로서 외간 남자와의 사통을 했다는 치명적 음해를 입어 고난을 겪게 된다는 구성적 필요성 때문에 친정 동생을 악인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통념상의 부자연스러움을 무릅쓰고 서술자가 친정 동생의 누이 모해 모티프를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부인이 외간 남자와 사통을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정황을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부부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 끝내 의심을 푸는 조성의 치가의 법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 2. 대조적 형태의 부부 관계와 작가 의식

<현몽쌍룡기>는 가문 밖의 요인에 의해 여성이 겪는 수난을 형상화하는 한편, 그러한 아내의 수난에 대하여 그들의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대조적으로 그림으로써, 작가가 생각하는 바 이상적인 부부 관계를 부조해내고 있다.

조무는 금환을 가진 정소저와 결혼을 한 뒤, 박수관의 계교에 의해 박귀비의 딸인 금선공주와 늑혼을 하게 되며, 거란을 평정한 뒤에 유배를 가 있던 연권의 딸 연소저와 불고이취하여 결혼을 한다. 그리고, 연소저와의 결연담을 들은 황제가 최소저를 사혼하여 네째 부인으로 삼게 한다. 그런데 이들 네 처 가운데 정상적으로 결연을 한 것은 첫째 부인 정소저 뿐이라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악인의 계교, 불고이취, 황제의 즉흥적 사혼 등과 같이 비정상적인 계기로 맺어진 부부 관계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에서는 첫째 부인 정소저와 조무 사이의 부부 문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나머지 세 처와 조무 사이의 결연 관계를 설정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무와 그의 처 정씨 사이의 갈등은 결혼에서 딸로서의 예를 지키려는 정씨의 부부관과 풍정을 앞세우는 조무의 부부관 차이 때문에 비롯된다. 정씨는 계모 박씨의 계교 때문에 도망을 하다가 조무 형제에게 구원을 받은 뒤, 외조부 석시랑의 주혼으로 결혼을 하는데, 정씨는 비록 용렬한 아버지지만 아버지에게 결혼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무와의 합근을 거절한다. 정씨는 실질적으로는 예를 갖추어 결혼을 하였지만 형식상으로는 부모 몰래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부모에게 혼인 사실을 알린 후 합근을 하려 한 것이다. 조무는 이러한 정씨의 뜻을 이해하면서도 오랜 동안 합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한다. 조무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거란을 평정하고 돌아오면서 연소저를 불고이취 하여 셋째 처로 맞아들이는 것과 대응되는 것으로서, 예보다는 풍정을 앞세우는 조무의 성격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조무의 부부관은 둘째 처인 금선공주를 맞으면서 문제적인 형태로 구체화된다. 박귀비의 늑혼으로 결혼을 한 뒤 조무가 금선공주를 박대하자 그의 부모와 조성이 걱정을 한다. 그러자 조무는 “우형의 명퇴 기구하여 무측천을 만나니 당고종이 아니라 어찌 능히 대접할 의사 있으리오 내 비록 정씨를 후대하나 본성이 화려하여 위의 가잔 처첩은 열이라도 사양치 아닐 뜻이 있으되 만일 어질진대 어찌 박대하여 위로 군의를 저바리고 아래로 치가를 어지럽게 하리오”라고 말하며 금선공주를 박대한다. 이에 대해 조성은 “공주 비록 외모가 아름답지 못하시나 형장의 수복이 만리에 벌였으니 어찌 일 여자의 상을 인하여 형장께 유해하리오 공주 비록 박복하고 심사 불현하시나 아직 나타난 과실이 없으니 너무 박대하심이 취화할 기틀이라 군자가 충효를 먼저하고 후에 다른 염려를 하리니 소제의 소견을 저를 관접하여 궁인 소시나 중인 소견에 박대하는 줄 모르게 하시고”라고 하여 조무와는 달리 천자와 부친, 그리고 정씨 및 가내의 모든 관계가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선공주를 박대하지 않도록 권유한다.

그러나, 조무는 이러한 조성의 권유를 듣지 않고 금선공주를 박대하다가, 금선공주의 계교로 최음약을 복용한 뒤에는 금선공주에게 빠지게 되어 보다 심화된 갈등을 초래한다. 비록 약을 복용한 상태이긴 하지만 조무가 금선공주에 빠져서 헤어가지 못하면서 정씨를 박대하는 모습은 자못 심각한 것이다. 심지어 조무는 정씨가 모해를 입어 폐출되어 나가면서 아이들과 이별을 하는 장면에서도 정씨를 박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가내의 모든 사람에게 꾸중을 듣

는다. 조무의 이러한 모습은

형당의 근리 형시 타인은 모르오나 쇼대는 아옵나니 비록 황여 룰공경 하나  
엇디 굿하야 쥬야 니실의 잠겨 군부의 부러심 곳 아니면 나오실 줄을 니즈  
시고 궁둥 쇼속을 보시면 문득 혼연혼 우음을 먹음어 깃거워 형시를 주리  
실 줄을 모르고 술을 때업시 취하샤 신관이 환탈 형시고 의디 룰바로 형시  
플 씨뎃지 못하시니 쇼제 두어번 간 하디 효험이 업고 이제 수 슈 형식이 입  
심의 감동홀 거서어늘 불평지스와 박절지 식을 방인의 이목을 휘티 못 하시  
니 아디 못게라 형슈 무슴 득죄하신 일이 잇느니잇가<sup>21)</sup>

라고 한 조성의 말에 압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금선공주에게 빠진 조무의 이  
러한 모습은 ‘군자 수신제가는 치국평천하지 본이라 요사이 형장 처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가르쳐 웃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고 비판 받는 것처럼 색에 빠져서 인간  
의 도리를 잊은 인물의 전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작품에서는 조무의 이러한 태도  
가 미혼약을 먹었기 때문으로 그려지지만, 그러한 조무의 태도 때문에 고난을 겪  
는 정소저의 입장 또는 정소저의 처지에 자신을 투사시켜 연민을 느끼는 소설 독  
자층에게는 이러한 조무의 모습이 부부 문제를 일으키는 부정적 인물의 전형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조무의 성격은 이후의 여성 관계에서도 분명하게 형상화된다. 그는 거란  
을 평정하고 귀환하는 길에 북해에 유배중인 이부상서 연권의 딸을 보고 반하여  
그녀를 불고이취하여 돌아온다.<sup>22)</sup> 미색에 홀리지 않고 오히려 미색 뒤에 감추어진  
요사함을 혁파하여 공업을 성취한 조성과 대조적으로, 조무는 자신의 공업을 미색  
을 취하는 발판으로 삼아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여인을 맞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부친 조숙에게 태장을 맞게 된다. 그리고 그 후 악행이 발각되어 유  
배를 갔다가 돌아온 금선공주를 홀대하여 금선공주로 하여금 가란을 일으키게 하

21) <현몽쌍룡기> 권지육, 174 쪽.

22) 마름에 황홀하야 승각하되 텃하에 엇지 이런 미식이 잇는고 당시 비록 식광이 초세하나 츳인의  
게 오히려 불급하리니 아지못게라 내 팔척 장부로 스군 보국하야 명만스히하니 숙여미첩을 갖쵸  
와 지업을 널니리니 엇지 일쳐로 늑으리오 당시의 숙녀스덕으로써 적인을 죽히 화동하리라. <현  
몽쌍룡기> 권지 십사, 418 쪽

며, 정소저의 부친 일을 거론함으로써 정소저와도 갈등을 일으킨다. 이처럼 조무는 작품의 서두에서 ‘앵혈 사건을 빌미로 창기와 관계를 맺고 부친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여, 시중 부부 문제 때문에 동생 조성의 충고를 듣는 한편, 부친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처럼 <현몽쌍룡가>에서 장자 조무는 영웅호걸이면서도 색에 대해서는 절제력을 갖지 못한 인물로 그려진다. 이렇게 볼 때 앞에서 살펴본 바 조무의 처 정씨가 친정의 계모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는 것처럼 그려지지만, 기실 조무와의 부부 관계 때문에 겪는 고난이 정씨의 실질적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정씨가 그녀를 처로 맞아들이려는 박수관의 모해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그것은 조무와 정씨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매개해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정씨를 처로 맞으려는 박수관의 추적 때문에 정씨는 조무 형제의 구원을 받아 결혼을 하게 되며, 정씨와 조무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금선공주와 조무를 결혼시키는 박수관의 계교는 조무와 금선공주 그리고 정씨 사이의 부부 처처 갈등을 매개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현몽쌍룡기>의 작가는 표면적으로는 친정의 계모 때문에 여주인공 정씨가 고난을 겪는 것처럼 그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부장으로서 부부 문제를 이상적인 형태로 이끌지 못하는 부덕한 조무와 정소저 사이의 갈등을 통해 양혼으로 인해 친정 콤플렉스를 지닌 여인의 부부 갈등으로 인한 고난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조무의 쌍동이 동생 조성의 부부 관계는 이와 대조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조성은 모두 세 처를 얻는다. 그는 옥환을 가진 양소저와 결혼을 한 뒤 금선공주의 계교로 인해 양소저가 폐출 당하고 죽은 줄 오인을 한 상태에서 늑혼에 의해 왕소저와 결혼을 하며, 후에 양소저와 자매지의를 맺은 윤소저와 혼인을 한다.

첫째 부인 양소저와 조성의 관계는 조성의 고난에 처한 양소저에 대한 태도를 통해 구체화된다. 조성은 팔왕의 주선으로 양소저와 결혼을 하는데, 양소저의 동생 양제는 조성에게 재산을 빼앗길까 봐서 시비 계월과 내통하여 음란한 편지를 양소저의 침실에 놓아 조성의 눈에 띄게 하고, 계월로 하여금 양소저로 변하게 하여 강후신과 만나는 장면을 조성이 보게 한다. 그런데 조성은 양소저의 행실에 대해 단정을 하지 않는 한편 이들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다만 양소저와 거리를 둘 뿐이다. 그러다가 조모와 부친의 걱정을 듣고는 양소저를 관대하는 것으로 그려진

다. 예컨대 양소저가 음행을 한 것으로 모해를 당하여 폐출되는 장면에서도 그는 진심으로 양소저를 위로하고 목숨을 부지할 것을 재삼 당부한다.<sup>23)</sup>

외간 남자와 사통을 하였다는 모함을 받고 폐출되는 양소저의 처지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알아주면서 이처럼 위로하는 남편의 말은 뼈 속 깊은 감사를 느끼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조성이 여러 차례 양소저가 음행을 하였음을 의심함직한 사건을 목격하였음에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으며, 나아가 음행의 모해를 입어 폐출 당하는 장면에서도 아내를 위해 이처럼 당부를 하는 장면을 읽으면서, 양소저에게 자신을 투사시켜 연민의 정을 느끼는 여성 독자들은 감격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조성의 태도는 앞에서 살펴본 조무의 태도와 대조되어 독자층의 가슴을 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경우를 조무가 당했다면 조무는 황제에 의해 폐출되기 전에 이미 스스로 그의 처를 축출하거나, 그것을 발설하여 처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조성의 부부 관계는 그의 둘째 처 왕소저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세째 처 윤소저와의 결혼 형태를 통해서도 구체화 된다. 왕소저는 양소저가 축출된 후 늑혼으로 인해 맞아들인 부인인데, 양소저가 다시 조부로 돌아오게 되자 양소저에 대해 투기를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조무는 투기를 하는 왕소저를 나무라지 않고 관대하게 타이르면서 양소저와 왕소저를 차별하지 않고 대한다. 기부장으로서 어느 한 처에게 치우치지 않는 한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덕으로 감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왕소저가 시부모의 앞에서도 투기를 하게 되자 조무는 엄격하게 다스려 투기를 하려는 마음을 먹지 못하게 한다.

또, 윤소저와 조성의 결혼은 양소저가 윤소저의 집에 피난을 하여 목숨을 구한 인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려진다. 윤소저의 부친 윤시량은 꿈에 자신의 딸이 조가와 결혼을 하게 될 것이며, 양소저의 아들을 구할 것이라는 꿈을 꾀다. 그리고 꿈대로 양소저를 구하여 딸 윤소저와 자매의 의를 맺게 하며, 양소저의 아

23) 나는 부인의 누명을 신박기 전이라도 부인을 죄인이라 아니하고 나라히 인연을 쓰쳐시나 혹성은 부인을 원비로 위하여 유지 격장이 될 거시오 그 아들이 잇고 칭의 모양이 이런 후는 부인이 만니 식외의 처혀셔도 이 조스원을 밋고 반석긋흔 지심의 안희로 알며 쏘 존당 부모와 숙미의 은익는 정이 -중략 만일 부인이 죽는 날이면 이 곳 스원의 처직 아니라 칭이 쏘흔 복제를 아닐 거시오 시신도 너 집 선영의 용납디 아니허리니 칭의 차언이 부인의 스칭 처변을 경히 흘가 심국을 니르미니 부인은 등한히 듯디 마르쇼셔. <현몽쌍룡가> 권지육, 185 쪽

들을 구한다. 그 후 양소저의 부친 양임은 윤소저와 조무를 맺어주려 하지만 조무의 조모가 반대를 하자 명숙황후에게 아뢰어 그들을 결혼시킨다. 서술자는 도덕군자인 조성이 스스로 다른 처를 맞이하지 않고 타의에 의해 처를 맞이하는 것처럼 상황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새로 맞은 처를 첫번째 처의 은인이면서 의자매로 설정함으로써 두 처가 아황과 여영처럼 투기를 하지 않고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서술자는 조성의 세 처를 통해 처들 스스로, 또는 관후한 조성의 덕에 감화되어 투기를 하지 않고 다처제적 가문을 유지해 나가는 형상을 전형화 하여 제시한 것이다.

한편, 조성과 조무의 이러한 대조적 성격은 그들의 입궁 삽화를 통해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작가는 조성이 광동 지방의 변고를 해결하여 공업을 성취하는 것으로 그린다. 그런데, 이 광동지방의 변고는 관부의 요괴 설화와 같은 것으로서 광동지역에 요괴가 나타나 수많은 사람이 죽을 뿐 아니라 부임하는 자사들도 모두 요괴에게 홀려서 죽게 되어 관부가 폐허로 바뀌는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조성이 광동 자사로 부임하여 요괴를 물리치는데 이 요괴는 미녀로 변신한 천년 묵은 구미호로 설정된다. 작가는 색에 미혹되지 않는 조성의 정인 군자적 풍모를 부각시키기 위해 원혼 설화인 관부의 요괴 설화를 구미호의 탈혼 설화 형태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작가는 이 작품에서 조성의 부부 관계를 통해 악인의 간계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에도 가부장인 남편의 덕성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를 형상화하는 한편, 조무의 부부 관계를 통해서도 악인의 간계 때문에 생긴 부부 갈등이 남의 풍정으로 인해 확대 강화되는 경우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로 하여금 양혼으로 인한 친정 콤플렉스를 부부갈등에 투사시켜 해소하게 하고, 가부장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부 갈등의 문제점을 각성하게 하는 한편, 현실적 부부 관계에서 느끼는 억압을 낭만적인 형태로 해소하게 하는 것이다.

#### I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 <현몽쌍룡가>는 조성 조무 두 쌍둥이 형제의 부부 관계를 형상화 한 작품이다. 작가는 이러한 두 쌍의 부부 관계를 대조적인 형태로 형상화 함으로써, 가부장제의 틀 안에서 상정할 수 있는 바 이상적인 부부 관계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특기할 점은 이 작품에는 두 쌍의 부부 관계를 형상화 하면서 부부 갈등이 여성 주인공의 친정 식구들 때문에 야기되는 것으로 그려지며, 시댁 식구들은 정도 이상으로 여성 주인공들을 관대하는 것으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이 작품의 주된 독자층이 사대부 부녀층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오늘날의 통념으로 본다면 이러한 현상은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부부 갈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사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부장제 이념이 강고하게 유지되던 조선 시기에 사대부 부녀층에게 있어서 부부 갈등을 드러내놓고 문제 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중에 설정된 여주인공의 도덕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부갈등을 문제 삼기 위해서는 여성주인공이 속한 가문의 가부장이 그들 여성 주인공들의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형상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몽쌍룡가>에 조씨 가문의 구성원들이 여성 주인공의 정절을 인정하면서 각별히 관대하는 것으로 그려진 것은 이 때문이다. 이처럼 조씨 가문의 구성원이 여성주인공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리는 경우, 여성 주인공의 고난을 야기하는 원인은 친정 식구들로 설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친정의 가문이나 시댁 가문 밖에서 여성 주인공이 겪는 고난의 원인을 설정한다는 것은 가문소설의 성격상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는 이렇게 하여 설정된 친정 식구의 모해가 성격이 다른 두 남성 주인공과 결합되면서 각기 상이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조무와 정소저의 경우 양혼으로 인한 친정 콤플렉스를 지닌 여주인공과 가부장의 윤리를 지키지 않는 남 주인공 사이에 나타나는 부부 갈등의 표면적 원인으로, 조무와 양소저의 경우 여성이 의심을 받을 만한 상황에도 남성 주인공이 관대한 덕성을 발휘하여 이상적인 부부 관계를 구현할 수 있는 구성적 계기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친정 콤플렉스를 갖는 정소저의 고난을 매개로 독자층이 부부 갈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각성하게 되는 효과를 연출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양소저의 고난을 가부장의 덕성으로 감싸는 조성의 행위를 매개로 독자층이 현실에서 느끼는 부부 갈등의 해소를 바라는 낭만적 소망의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임치균 해제, 『<현몽쌍룡기>』, 장서각소장 고소설자료집1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姜銓燮, 「언문책 목록 소고」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서울: 중앙문화사, 1995, 2027쪽.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서울: 교학연구사, 1983.  
이수봉, 『가문소설연구』서울: 경인문화사, 1992.  
이수봉 외, 『한국가문소설연구논총』1,2,3 서울: 경인문화사, 1991, 1999.  
한길연, 「사대부가 여성독자의 시각에서 본 용서대립담의 의미와 그 유형」, 고소설학회 59 차 학술대회 발표요지, 2002. 10. 26.  
W. E. Skillend, 『古代小說』,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W.C.1, 1968.

● 투고일 : 2003. 8. 20

● 심사완료일 : 2003. 9. 17

● 주제어(Key words): 현몽쌍룡기(Hyunmong-Ssangryong-Ki), 가문소설(family novel)